

결과 속다른 이기적 환경노리

화 창한 5월의 어느날 저녁. 저녁 종합뉴스를 챙기고 퇴근할 무렵 전화 한통을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욱부터 들어야 했다. “제대로 취재도 안하고 기사부터 쓰면 되느냐, 기자면 다냐” 등등 얼굴을 마주했다면 한 대 칠기세였다. 한 5분 혼자 떠들더니 흥분이 가라앉았는지 자신은 광나루에서 20여년간 살며 불교계 방생때 고기를 대주는 업자라고 자신의 소개를 했다.

며칠전 부처님 오신날에 수입어종의 방생으로 인해 한강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를 막기위해 방생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었기에 그제서야 왜 전화를 했는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감이 왔다.

업자는 자신이 불교계에 영향력이 있으며 이런식으로 불자를 괴롭히면 불교방송에 있기 힘들것이라며 기세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자신은 블루길같은 수입어종을 방생에 쓴일이 없으며, 방생을 위해 어촌계를 통해 토착어종을 키워서 파는 만큼 베스나 블루길이 방생을 통해 광나루 주변의 한강에 유입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이어 한강 생태계의 파괴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70년대 무분별하게 외국어종을 수입했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슬그머니 당국으로 돌려다.

상대방이 변명으로 일관하자 방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편일뿐 절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방생으로 인해 더많은 생명이 삶의 터전을 잃게 한다면 그것이 불심이냐고 되물었다. 그리고는 환경처와 불교계가 방생자제를 합의한 공문서본과 지난해 광나루방생때 수입어종을 파는 장사꾼을 찍은 사진이 있으니 와서 확인해 보라고 썰기를 박고 전화를 끊었다.

그후 이와 관련한 어떤 연락도 없었다.

50년만에 찾아왔다는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8월의 오후.

점심을 먹고 기자실로 돌아오니 얼굴에 불만이 가득 새겨진 중년남자들이 기자실 쇼파를 점거하고 있었다. 모기자를 찾은 그들은 자신들이 이쑤시개 생산업자 연합회에서 왔으며 왜 확정되지도 않은 이쑤시개 사용금지 정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느냐고 항의했다. 환경처는 음식물쓰레기에 섞여들어간 이쑤시개가 이것을 사료로 먹은 돼지를 폐사시키기 때문에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이쑤시개 사용금지 조항을 추가로 넣었는데 이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들이 축산 업자에게 확인 한 결과 음식물쓰레기보다는 사료를 먹이는 것



南 洵
(불교방송 사회부기자)

이 더 채산성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보다 못한 주위의 기자들이 업자들 입장에서는 생업이 달린 중요한 것이지만 정부정책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일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서 어색했던 분위기가 다소 풀렸다. 이후 이들은 돼지가 이쑤시개를 잘못먹고 폐사한다는 논리로 수십억대에 이르는 이쑤시개시장을 망쳐놓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논리와 함께 기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지난해 가을 민자당 고위정책관계자들은 때아닌 고민에 빠졌다.

재산공개 등 개혁이라는 큰 물결속에 치솟던 인기에 환경세신설이라는 정치적 악재가 나왔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이 있어야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환경세의 신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집권당으로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었다. 고민끝에 결국은 환경세신설 논의자체를 막아 버렸다.

당시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사석에서 환경세신설은 꼭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적어도 선거에 자신있는 정권이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옛날 군사독재정권들이야 차기집권에 자신이 있었기에 모든 정책을 확일적으로 밀고 나갔으나 선거라는 민의에 의해 정권을 재창출해야하는 요즘에는 세금의 신설이라는 것은 집권연장에 치명타라는 정치논리를 폈다.

**부처님의 말씀에
계차도라는 것이 있다.
살생을 금해야 하지만
더많은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하는 일부의 살생은
어쩔수 없다는 말씀이다.
후손들에게서 빌려온
환경을 온전히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조금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환경에대한 정치적 무관심은 을초 음용수관리법을 제정하면서도 여실히 나왔다. 당초 지하암반대수층의 물로 규정했던 광천음료수정도가 정부부처회의와 당정회의를 거치면서 지하에서 나와 지표수에 있는 물로 화학적처리가 안된물로 확대해석 된 것이다. 외국과의 무역마찰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정부내에서 나왔고 결국 당정회의의 과정에서도 이 논리가 채택돼 광천음료수에 흐르는 물은 거의 포함된 것이었다.

최근에 와서 관심을 끌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아직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낙동강이 심하게 오염돼 식수취수가 중단돼야 오염물질을 없애려고 부산을 떠날 때 다시 취수가 재개되면 근본치유에 다시 무감각해진다. 물론 환경처가 근본적인 해

결을 찾는다고 이리저리 궁리하지만 재원이 뒷받침 되지않는 상황에서는 정책입안 자체가 곤혹스러운 것이다. 여기에 환경처의 위상도 떨어져 부처간 조정회의에서 경제논리에 밀려 당초 정책이 수정되고 어찌다 통과된 정책은 정치논리에 밀려 좌초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이다. 선진각국은 벌써부터 환경을 빌미삼아 무역보복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수출상품에 크레임을 걸 기세이다. 환경이야 오염되던, 말던 공장을 마구돌려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수출해야 우리나라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환경보호논리가 적어도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와 어께를 같이해야하고, 환경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환경문제가 부딪혔을 때 환경문제가 뒷편으로 밀려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환경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부처님의 말씀에 계차도라는 것이 있다. 살생을 금해야 하지만 더많은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하는 일부의 살생은 어쩔수 없다는 말씀이다. 후손들에게서 빌려온 환경을 온전히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조금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